

자녀에 대한 사교육과 체험활동 투자 패턴이 자녀의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Investment Patterns Private Education and Field Study on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and Social Relations

박은정(Eun Jung Park), 이성림(Seong-Lim Lee)*

Departmen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atterns of investment on children, analyze the differences in academic performance and social relations by the patterns of investment on children, and variables that influence academic performance and the social relations of children. To achieve such research objectives, the raw data from the 2012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investigation were used for the research. The analytical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the parents and the third-grade students of a middle school and the analytical methods used were: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Chi-squared test,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K-mean cluster,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pending on the research purpos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as a result formalizing investment pattern on children, there were five patterns of: experience oriented investment, passive experience investment, private education oriented investment, aggressive investment, and passive investment patterns. Secondly, for the patterns of investment on children, the level of academic performance was found to be the highest within the aggressive investment and the experience oriented investment types. The social relation level was found to be the highest with the experience oriented investment, with it being low in private education oriented investment and passive investment patterns. Thirdly, for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ademic performance of the children, it was found to be higher in aggressive investment, private education oriented investment, experience oriented investment and passive experience investment compared to passive investment. Some sociological factors were also found to be influential such as mother's age, father's education, sex of children, school area of children, type of house, and income. For the social relation level of the children, the factors of the aggressive investment, passive experience investment, and the experience oriented investment as well as the sociological factors by sex of children and income level are influential.

▲주제어(Key words): 사교육(private education), 체험활동(field study), 학업성취(academic performance), 사회관계(social relations)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음.

* Corresponding Author: Seong-Lim Lee, Departmen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ro-gu, Seoul, 110-745, Republic of Korea, Tel: +82-2-760-0521, E-mail: clothilda@skku.edu

I. 서론

2013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OECD, 2013),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교육비 부담은 2010년 기준 2.8%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가계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수준은 매우 높다¹⁾. 2013년 통계청의 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가계가 부담하는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23만 9천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Statistics Korea, 2014), 특히 주목할 점은 가구의 소득수준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고소득층(월 소득 500만원 이상)은 41만5천원, 저소득층(월 소득 100만원 이하)은 6만8천원으로 이 두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지출 격차는 6.1배에 달한다(Statistics Korea, 2014).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지출 격차가 큰 점이 문제로 여기는 이유는 사교육비지출 격차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사회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자녀의 성인기 소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모 세대의 소득 차이가 자녀세대까지 그대로 이전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과도한 사교육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S. Kim, 2005; O. Kim & E. Park, 2012). 첫째,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이 미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수업흥미를 저하시키고, 학생의 수업참여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 Kim, 2005). 둘째, 과도한 사교육 참여로 인하여 학습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면시간 및 여가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이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O. Kim & E. Park, 2012). 셋째, 다양한 사회적 참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사교육에 몰입하면 이러한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성 및 사회관계 발달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S. Kim, 2005; O. Kim & E. Park, 2012). 넷째, 지나친 사교육은 경쟁 심리를 부추김으로써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S. Kim, 2005).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학업성취 향상을 위

한 사교육 투자에 치우치기보다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성적에 중점을 두기보다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역할 습득과 인성 등 사회적·경제적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청소년은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집단 내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며 사회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한다면 학교 밖 영역 활동에서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접목해 봄으로써 다각적인 측면에서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성취동기 등을 증진시킬 수 있고, 또한 학업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의미한다(Frame-work act on juveniles).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이며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으로서(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수련활동은 용어 및 개념적 정의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모두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이를 '청소년 체험활동'으로 명명할 수 있다(J. Hwang, H. Heo, & H. An, 2013). 이들 활동은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이 '경험을 통해 지각(perception)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러한 지각의 변화가 다시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 연속적인 학습과정을 거치기 때문에(M. Cho, 2010),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 능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발달과업을 완수 할 수 있다(J. Hwang et al, 2013).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인성을 계발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삶의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 Kwon, C. Jung, J. Kim, & Y. Kim, 2008). 문화·스포츠단체 활동의 경험은 신체적 활동을 통해 친구 및 사회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며 사회관계를 도모함은 물론 심신을 단련시키고, 자원봉사활동은 체험과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져 인격도야와 바람직한 성장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O. Kim & K. Han, 2010, 269; O. Kim & E. Park, 2012). 또한 과학정

1) 교육 통계(OECD, 2013)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은 GDP 대비 7.6%로 OECD 평균 6.3%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총교육비 중 공교육비 비중은 4.8%로 OECD 평균 5.4%보다 낮은 반면 민간 교육투자는 2.8%로 OECD 평균 0.9%의 3배 이상 이고, 일본의 1.7%와 프랑스의 0.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적인 교육투자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보, 모험개척, 수련활동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청소년들의 활동과 경험은 동기부여, 자신감, 시간관리, 변화 대처 등을 초래하여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 Kim, 2007; Y. Choi & K. Choi, 2012). 이처럼 청소년 활동의 효과성은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에서 나아가 기업채용방식의 변화에도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기업에서는 학력위주의 고용방식에서 벗어나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인성 등 학업능력이나 성적이상으로 역량에 대한 요구를 확대하고 있어(K. Kim et al., 2009),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가 중요시 된다.

청소년 활동은 사회인으로서 청소년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생산적, 창조적 인적자본을 형성하는 사회적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S. Kim, 2011; R. Lee, 2011).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자녀의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와 긍정적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면서 자녀에 대한 투자가 사교육 외에 체험활동까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 격차와 유사하게 가계의 체험활동 참여비율이나 체험활동 참여시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체험활동 참여와 참여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K. Lee et al., 2011). 대체로 가계의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높았고(K. Lee et al., 2011; T. Shin, H. Lee, & H. Kwon, 2012; C. Bae & H. Nam, 2013; J. Hwang et al., 2013), 체험활동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참여시간부족(49.1%), 참여비용부담(43.0%) 등으로 밝혀졌으며, 체험활동에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서 참가비용지원(58.9%)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체험활동이 경제적 비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J. Lim, 2010).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투자는 사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교육 투자와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조사와 연구(S. Lee, 2002, 2005; S. Lee, 2003; J. Yang & S. Kim, 2003; E. Lee, 2004, 2006; C. Park & J. Do, 2005; E. Kim, 2007; K. Sung & J. Kim, 2010; I. Chung, 2011; J. Seok, B. Kim, & H. Noh, 2012)가 이루어졌다. 최근 체험활동 인증제도와 교과과정 외의 학교 밖 체험활동 및 교과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면서 자녀에 대한 투자가 체험활동 영역으로 확대되어 체험활동의 실태, 체험활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N. Cho,

2009; B. Ahn, 2009; H. Kim & C. Choi, 2011; K. Ko & C. Nam, 2011; K. Lee et al., 2011; T. Shin et al., 2012; Y. Choi & K. Choi, 2012; C. Bae & H. Nam, 2013)가 이루어졌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체험활동 참여가 자녀의 성적 및 사회관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투자가 사교육 외에 체험활동까지 확대되고 있고, 사교육과 체험활동참여가 자녀의 성적 및 사회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실태와 효과, 체험활동 실태와 효과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실제로 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사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교육과 체험활동이 결합하여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사회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투자를 사교육과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자녀를 위한 사교육과 체험활동에 대한 투자 유형별 차이가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사교육과 체험활동에 대한 유형화는 단순히 사교육과 체험활동의 실태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교육과 체험활동 유형별 특성과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통하여 가계에서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사교육과 체험활동에 대한 투자 행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자녀의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자녀에 대한 투자

자녀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기존연구는 사교육 및 체험활동 실태에 대한 개별적 연구로서, 가계의 사교육에 대한 투자는 사교육비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체험활동은 체험활동에 대한 참여율과 참여시간을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자녀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밝혀지면서 가계소득과 사교육비지출 및 체험활동 실태의 차이를 파악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먼저 사교육비지출과 관련된 연구는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실태를 분석하거나 사교육 투자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성을 파악한 경험적 연구가 있다. 소득과 사교육비 투자 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M. Park & J. Yeo, 2000; S. Lee, 2002; S. Lee, 2003; J. Yang & S. Kim, 2003; E. Lee, 2004; J. Seok et al., 2012)를 보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초점을 두고, 연구자마다 소득계층을 다르게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S. Lee(2002), J. Yang and S. Kim(2003), E. Lee(2004)는 도시가계조사 또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투자를 분석하였다. 소득계층을 10분위 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지출이 증가하는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외에 소득계층을 5분위로 구분한 연구(J. Seok et al., 2012)에서도 자녀 1인당 사교육비지출 수준이 소득 하위 20% 1분위는 월 9.6만원인데 비해 소득 5분위는 월 51.4만원으로 5.4배의 격차를 보여 소득은 자녀의 사교육비지출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을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소득계층간의 사교육비지출 격차 및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M. Park & J. Yeo, 2000; S. Lee, 2002; S. Lee, 2003; J. Seok et al., 2012). M. Park and J. Yeo(2000)은 사교육을 시키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을 사교육 수단으로 정의하고, 각 사교육 수단별 지출 비용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과외, 학원, 학습지에 골고루 지출하거나 과외에 중점적으로 지출하는 반면 저소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위 비용이 낮은 보충학습이나 학습지에 대부분의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밝혔다. S. Lee(2003)은 소득계층을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 중위소득의 50%미만을 저소득층, 중위소득의 150%이상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사교육비지출 행동을 조사하였다. 저소득층에서는 가계지출비목 중 자녀 사교육비지출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비해 매우 낮고, 중류층은 자녀의 사교육비지출을 탄력적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사교육비지출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나 가계경제적 측면의 제약으로 인해 탄력적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고소득층은 사교육비지출(203,830원)이 저소득층가계(45,738원)의 약 5배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교육을 위한 사교육비지출은 가계투자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 Lee(2002), J. Seok et al.(2012)은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1~3분위를 저소득층, 4~7분위를 중간소득층, 8~10분위를 고소득층으로 정의한 후 사교육비지출을 조사하였다. 소득계층간 사교육비지출은 상층의 사교육비(144천원)는 하층(59천원)의 2.4배, 중층(92천원)의 1.56배, 그리고 중층은 하층의 1.55배로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격차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득계

층별 사교육을 받는 가계의 비율과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격차와 행위가 다르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실태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교육의 패턴을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사교육 투자의 유형별 특성과 각 집단의 결정요인을 파악한 연구가 있다(E. Park & J. Ko, 2014). 유아 및 유치원 이상의 취학자녀를 둔 양부모 가구만을 중심으로 사교육 투자를 유형화한 I. Ju(2000)은 사교육비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인 입시학원비, 예능학원비, 체육학원비, 사무전산학원비, 개인과외비를 포함하는 기타보충교육비, 도서관비, 그리고 기타교육비의 변수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예능학원비 지배유형(23.8%), 기타교육비 지배유형(19.0%), 체육전산학원비 지배유형(23.8%), 입시학원비 지배유형(18.6%), 개인과외비 지배유형(26.0%)의 5유형으로 분류하였다. M. Park and J. Yeo(2000)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사교육비지출 실태의 원자료 중 만 3세 이상부터 대입 재수생까지의 한 명과 두 명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사교육 수단별 지출을 중심으로 사교육을 유형화하였는데, 사교육 수단은 사교육을 시키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학원수강, 과외교육, 학습지구독료, 방과후 보충학습을 포함하였다. 사교육을 유형화한 결과 분석 대상 중 절반 정도가 학원 중점형(50.8%)이고, 다음으로 높은 유형은 학원/학습지 복합형(18.1%), 보충학습 중점형(9.3%), 학습지 중점형(9.0%), 과외 중점형(6.4%), 과외/학원/학습지 복합형(3.4%), 학습지/보충학습 복합형(3.0%) 순으로 분류된다고 보고하였다. 사교육은 선택하는데 있어서 비용뿐 만이나 사교육 방식, 사교육시간, 사교육 수와도 상호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교육을 패턴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E. Park and J. Ko(2014)은 사교육 방식, 사교육시간, 사교육 수,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사교육을 패턴화하였다. 그 결과 축소투자형(33.9%), 금액투자형(15.4%), 시간투자형(22.0%), 무투자형(28.7%)의 4개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교육 패턴별 소비자특성에서 금액투자형의 가구소득이 가장 높는데 비해 무투자형의 소득이 가장 낮다고 보고하였다.

체험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체험활동 참여여부에 초점을 둔 것과 체험활동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소득과 청소년 활동의 참여수준은 소득을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제수준을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I. Kim, 2009; N. Cho, 2009; S. Ha, 2013). N. Cho(2009)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활동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I.

Kim(2009), S. Ha(2013)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수준과 참여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소득과 체험활동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것을 보면, 소득에 따른 체험활동 참여가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H. Kim & C. Choi, 2011; K. Lee et al., 2011; T. Shin et al., 2012; C. Bae & H. Nam, 2013; J. Hwang et al., 2013). H. Kim and C. Choi(2011)은 가계소득을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체험활동에 대한 참여수준, 활동 빈도, 가족의 관심도를 살펴본 결과 상층집단이 하층집단보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의 참여수준, 활동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가족의 관심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K. Lee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과학/정보활동과 봉사활동의 참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소득집단 간 체험활동 유형별 차이가 나타났다. T. Shin et al.(2012)은 저소득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체험활동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의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의 참여수준이 낮다고 밝혔다. J. Hwang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에 대한 체험활동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강보건활동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라 체험활동 영역별 수준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체험활동과 연간소득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C. Bae & H. Nam, 2013)는 연간소득은 교류활동과 문화/예술활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청소년의 체험활동은 소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자녀에 대한 투자 연구를 정리해 보면 소득과 사교육 및 체험활동 실태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고, 소득이 자녀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사교육과 체험활동에 대한 실태가 각각 이루어져 자녀를 위한 사교육과 체험활동 투자가 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과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자녀에 대한 투자와 학업성취

학업성취는 교육의 결과변수로서, 사교육 및 체험활동과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는 자녀에 대한 투자의

효과로 설명되고 있다. 먼저 사교육 투자와 학업성취의 연구를 보면, 사교육 투자의 효과는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사교육 투자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E. Lee, 2006; I. Chung, 2011; J. Hwang, 2013)를 보면, E. Lee(2006)는 소득계층을 상·중·하로 나누어 각 소득계층 간 성적격차를 본 결과 중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성적격차가 고소득층과 중소득층과의 격차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이들 격차에 대한 요인분해를 한 결과에서 중소득층과 저소득층과의 성적차이 중 사교육비 차이에 의한 것이 17.5%, 고소득층과 중소득층과의 성적차이 중 사교육비의 차이에 의한 것은 9.4%,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과의 성적차이 중 사교육에 의한 것이 32.9%로 나타났다. I. Chung의 연구에서(2011)도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는 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 Hwang(2013)은 사교육 참여시간과 학업성취의 관계연구에서 사교육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투자 시간과 성적의 정적 관련성을 밝혔다. 또한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를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본 C. Park and J. Do(2005)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사교육을 경험한 중학생일수록 학업성취 수준도 높다고 밝혔다. J. Lee(2010)는 가족자원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는 가구소득, 부모의 학력을 가족자원이라는 변수로 정의한 후 이들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가족자원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사교육은 가족자원과 학업성취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사교육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 Lee, 2002; S. Ban et al., 2005; E. Kim, 2007; J. Lee, 2008; H. Kim, 2012). 과도한 사교육 투자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약화시키고, 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존할 경우 학습습관 역량을 저하시키며 학업성취 증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 Ban et al., 2005; J. Lee, 2008; H. Kim, 2012). K. Sung and J. Kim(2010)은 사교육 참여시간과 학업성취도의 관련성 비교연구에서 사교육 참여시간과 학업성취는 부적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참여 경향을 각 나라별로 보았는데, 핀란드와 일본은 성적이 낮은 학생이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의 경우 학업성취 수준과 관계없이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게 됨

로써 사교육과 성취도와의 관련성에서 역방향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J. Lee(2002)은 사교육의 대표적 변수인 과외를 투입하여 사회경제적 배경과 성적 사이에서 과외가 차지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외의 매개변수 역할은 부분적이라고 밖에 지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과외를 하면 성적이 향상된다고 단순하게 결론지을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E. Kim(2007)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사교육비 수준은 높아지지만,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증진시키는 데 별 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체험활동과 학업성취의 연구에서는 체험활동참여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로 대부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험활동을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자신감, 학습흥미, 성취동기, 성적 등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K. Ko & C. Nam, 2011; S. Park, 2011; S. Kim, H. Choi, & S. Park, 2012; M. Shin, S. Jeon, & M. Yoo, 2012; Y. Choi & K. Choi, 2012; C. Bae & H. Nam, 2013). Y. Kim and O. Park(2009)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4차년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 활동과 학업성취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4차년도 모두 청소년 활동과 성적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동아리활동은 중학교 2, 3학년 때, 자원봉사활동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수련활동은 고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시기에 따른 특성화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S. Kim et al.(2012)은 청소년 활동을 참여여부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청소년 활동에 참여한 만족도와 도움정도, 그리고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정도를 청소년 활동의 측정도구에 포함하여 청소년 활동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 활동이 학교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C. Bae and H. Nam(2013)은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성적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도와 과학정보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건강보건의활동, 교류활동 등 나머지 활동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체험활동의 종류에 따라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검증하였다. 체험활동의 질적 연구를 진행한 Y. Choi and K.

Choi (2012)의 연구에서 체험활동 참여는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체험활동의 경우 학교 밖에서 학습과 관련된 이론적인 것들을 종합해 실제로 생활에 적용시켜 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를 증진시켜 성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이상과 같이 사교육 및 체험활동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각각 이루어져 있고, 사교육 투자의 경우 학업성취에 미치는 연구는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으며, 체험활동의 경우 체험활동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이루어져 있을 뿐 사교육과 체험활동을 포함한 자녀에 대한 투자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교육과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 자녀에 대한 투자와 사회관계

사회관계는 타인과의 관계가 친밀하거나 유대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M. Park, 2012), 청소년기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발달과업 수행을 돕거나 지지하는 체계가 되며 사회성 발달 및 학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A. Park, 2003). 청소년기의 다양한 사회관계 중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한 집단은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이다. 청소년기는 심리적 이유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독립적 행동의 성향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가장 독립적인 관계가 또래관계로 이들의 관계가 중요시 된다(M. Park, 2012). 또래집단은 준거집단과 지지집단으로서 서로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Gross & Siperstein, 1997, as cited in S. An & H. Lee, 2009). 교사는 학교를 구성하는 주요 체계이며, 청소년의 성취에 대한 동기와 교육적 열망을 개발시키는데 기여하는 체계로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촉매제역할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밀접한 관계는 청소년의 학습과 학교 수행을 촉진시킨다(M. Park, 2012). 또한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 간 느끼는 귀속의식 또는 유대감(J. Kim & T. Kim, 2012)을 말하는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단순히 지역적이고, 집합적 성격을 의미하기보다 정서적, 정신적 측면에서 공감대를 의미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이러한 공동체 개념은 지역적 중심에서 사회관계, 상호작용, 유대 등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체 의식도 지역적 특성을 탈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K. Ko & C. Nam, 2011) 사회관계의 하위영역으로 보고자 한다.

사회관계의 기존연구는 사교육 및 체험활동과의 관련성 및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대부분 사교육과 체험활동의 참여여부, 수,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교육은 체험활동에 비해 사회관계와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S. Kim(2005)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과 사회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 참여가 높고, 사교육 수가 많을수록 또래관계가 낮고, 사교육 교사와의 유대관계는 좋은데 비해 학교교사와의 관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A. Kim(2011)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사교육과 또래관계의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사교육 수와 사교육시간이 많을수록 또래관계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의 차이가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재능개발을 위한 예·체능 관련 사교육 중심이 많으며 사교육 동기가 진학준비와 학교수업 보충 외에 친구를 사귀기 위한 것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대학 진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요 교과목 위주의 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교육 동기가 상급학교 진학준비 및 학교수업 보충을 위한 것이 높은 점(S. Kim, 1999)과 더불어 중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에 비해 학문적으로도 더욱 경쟁적이면서 질적으로 어려워진 새로운 차원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Gutman & Midgley, 2000) 학업활동으로 인해 교사 및 친구와의 상호작용 양이 이전에 비해 감소할 수 있기 때문(Y. Kang, 2010)에 사회관계가 상이할 수 있다.

체험활동과 사회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는 체험활동이 사회관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J. Youniss, J. McLellan, Y. Su, & M. Yates, 1999; C. Albanesi, E. Cicognani, B. Zani, 2007; Putnam, 2009; L. Kang et al., 2010). J. Youniss et al.(1999)은 종교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적 관계망이 더욱 확대된다고 보고하였다. C. Albanesi et al.(2007)은 이탈리아의 14-19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집단활동 참여와 공동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활동은 공동체 맥락 안에서 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키고 또래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경험을 증진시켜 청소년의 공동체성뿐 아니라 사회복지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 Kang et al.(2010)은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는 육체적·심리적·사회적 관계의 질을 향상하여 대인관계 기술, 공동체성, 그리고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K. Lim, 2007; Y. Hwang, 2010; K. Ko

& C. Nam, 2011; S. Kim et al., 2012; J. Kim & T. Kim, 2012; J. Hwang et al., 2013)에서도 청소년 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교사, 교우, 또래관계, 공동체 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밝혀져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사회관계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청소년 활동과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를 보면, 청소년 활동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E. Jin & Y. Lim, 2009)에서 청소년 활동은 새로운 경험과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 만족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S.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활동은 또래관계 만족, 학교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A. Cho and T. Shin(2012)는 청소년의 체험활동은 사회성을 증진시킴으로서 또래 간의 갈등조정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 Hwang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체험활동에 참여한 수와 참여시간이 높을수록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 활동과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J. Kim and T. Kim(2012)은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체험활동 만족도와 체험활동 참여정도가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체험활동 참여 후 만족도보다 다양한 체험활동 참여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C. Bae and H. Nam(2013)의 연구에서도 체험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나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외에 K. Ko and C. Nam(2011)은 다양한 체험활동이 교사관계, 교우관계,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다양한 체험활동 중 과학정보활동, 봉사활동은 교사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봉사활동, 환경보존활동, 직업체험활동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봉사활동과 과학정보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사교육과 체험활동은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사교육의 경우 체험활동에 비해 실증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나 사회관계에 미치는 효과가 상반된 결과로 보고되고 있으며, 체험활동의 경우 사회관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교육과 체험활동이 결합하여 사회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2]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별 자녀의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자녀의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2. 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201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생을 대표하는 패널표본을 대상으로 향후 7년간 매해 1회 개인의 성장·발달(신체, 지적, 사회·정서)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가정, 또래, 교육, 지역사회, 매체) 등에 관하여 반복·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 중 하나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급변하고 다양화되는 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과정과 각 시기의 변화양상을 포착하여 아동·청소년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내용은 개인의 발달 영역과 개인을 둘러싼 발달 환경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발달 영역에는 신체적 사항, 학업성취, 사회·정서적 사항에 대한 정보와 개인 발달 환경 영역에는 가족자원, 사교육, 체험활동, 교우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지역사회 인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분석 자료는 전국의 대표성 있는 자료이면서 중학교의 가족배경, 자녀에 대한 투자, 자녀의 학업성취와 사회관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분석대상자는 제3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이며, 총 2,351명 중 소득이 없거나 성적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자료 400부는 제외하였고, 사교육 및 체험활동에 관해 전혀 응답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응답한 299명을 제외한 1,652명이다.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을 사교육과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사교육 수, 사교육시간, 사교육비, 체험활동 수, 체험활동시간을 토대로 유형화하였다. 사교육 수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5과목에 대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총 개수이고,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5과목에 대한 월 평균 사교육비와 주당 사교육시간이다. 체험활동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건강보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에 참여한 개수와 참여한 시간이다.

또한 학업성취는 지난 1학기 성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5과목에 대한 평가 점수로 64점 이하(1점)부터 96점 이상(8점)까지의 8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관계는 또래관계, 교사관계, 공동체 의식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총 문항은 23문항으로 또래관계 14문항, 교사관계 5문항, 공동체 의식 4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사회관계 척도의 신뢰도는 또래관계 .80, 교사관계 .85, 공동체 의식 .81로 각각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을 보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PWSA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녀에 대한 투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활용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투자를 패턴화하기 위해 사교육과 체험활동의 변수인 사교육 수, 사교육 시간, 사교육비, 체험활동 수, 체험활동시간의 다섯 차원을 토대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 및 학업성취와 사회관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차분석, ANOVA분석 및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자녀의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52)

Variables	Classification	Mean	STD
Father's Age (yr)		46.34	3.99
Mother's Age (yr)		43.33	3.76
Income		4,619	2,509
	Classification	Frequency	%
Father's Education	under highschool graduate	703	45.7
	over college graduate	834	54.3
Mother's Education	under highschool graduate	903	58.4
	over college graduate	644	41.6
Father's Job type	managerial · professional	366	22.2
	clerical	224	13.6
	service · sales	343	20.8
	simple skilled etc	559	33.8
	non job	160	9.7
Mother's Job type	managerial · professional	244	14.8
	clerical	190	11.6
	service · sales	390	23.7
	simple skilled etc	216	13.1
	non job · housewife	604	36.7
Sex of children	boy	863	52.2
	girl	789	47.8
School area of children	seoul	118	7.1
	incheon · gyeonggi	337	20.4
	other regions	1,197	72.5
Type of housing	detached house	412	24.9
	apartment	988	59.8
	multiplex housing, shopping quarters etc.	252	15.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rivate Education, Field Study

Classification	Sample size	Mean	S.D.	Median value
number of private education	1,652	2.08	2.00	2.00
private education time(minutes)	1,652	406.18	412.51	300.00
private education expense(ten thousand won)	1,652	25.91	33.50	25.00
number of field study	1,652	1.37	1.51	1.00
field study time(minutes)	1,652	563.50	707.92	300.00

IV. 연구결과

1.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을 분류하기에 앞서 사교육과 체험활동에 대한 점수 분포를 보면 <Table 2>와 같다. 사교육 수는 평균 2개이고, 주당 사교육시간과 월 사교육비는 각각 평균 6시간 46분, 26만원이며, 연간 체험활동 수는 1.37개, 연간 체험활동시간은 9시간 24분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투자 점수 분포를 볼 때, 자녀에 대한 사교육 투자는 체험활동 투자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비해 자녀의 체험활동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기초정보를 토대로 사교육 수, 사교육시간, 사교육비, 체험활동 수, 체험활동시간의 다섯 차원을 기준으

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5개의 집단으로 패턴화 할 수 있었고,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은 크게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과 비계층적 군집분석(Non-Hierarchical Clustering)으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비계층적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사용하였다(J. Song, 2009). 비계층적 방법인 K-평균 군집분석의 경우 군집 수가 너무 많을 경우 군집의 성향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O. Kim et al., 2012) 적정 군집 수 3~6개 범위 안에서 5개의 군집으로 패턴화한 결과가 군집의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을 5개의 군집으로 패턴화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유형 1을 <Table 3>에서 제시된 평균점수와 비교

Table 3. Frequency and Standardized Scores by Investment Patterns on Children

Type	n(%)	number of private education	private education time(minutes)	private education expense (ten thousand won)	number of field study	field study time(minutes)	Code
experience oriented investment	64(3.9)	1.86b ⁺	391.80c	27.80b	3.16a	2865.00a	- - + + +
passive experience investment	354(21.4)	1.73b ⁺	243.32d	21.17bc	2.18b	891.19c	- - - + +
private education oriented investment	416(25.2)	3.61a ⁺	877.52a	40.31a	0.97c	246.35d	+ + + - -
aggressive investment	153(9.3)	3.33a ⁺	714.54b	35.00a	2.90a	1647.06b	+ + + + +
passive investment	665(40.3)	1.04c ⁺	128.46e	17.15c	0.67d	111.66e	- - - - -
F	1,652(100.0)	174.905 ^{***}	609.419 ^{***}	38.424 ^{***}	187.196 ^{***}	3132.258 ^{***}	

***p < .001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해 보면, 사교육 수와 사교육시간은 평균보다 적는데 비해 사교육비, 체험활동 수, 체험활동시간은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28만원으로 평균보다 많고, 체험활동 수와 체험활동시간은 다섯 유형 중 가장 많은 특징이 있다. 이것을 점수 부호로 보면 “- - + + +”로 표시할 수 있고, 이 유형을 “체험중심투자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분석대상자 중 3.9%가 이 유형에 속하며 다섯 유형 중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인다. 이 유형의 체험활동 참여 수는 3.16개이고, 체험활동 참여시간은 평균 47시간 45분으로 다른 유형보다 특히 많으며, 사교육시간은 주당 평균 6시간 32분, 사교육비는 28만원이다.

유형 2는 사교육 수, 사교육시간, 사교육비는 각각 평균보다 적은 반면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수와 참여시간은 평균보다 많은 “- - - +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체험활동 수는 2.18개이며 체험활동시간은 평균 14시간 51분으로 체험활동시간의 경우 평균점수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유형 1과 유형 4보다 각각 3.2배~1.8배의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적다. 따라서 이 유형을 “소극적체험투자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유형에는 21.4%가 속한다. 사교육시간은 4시간 3분이고, 사교육비는 21만원이며 연간 체험활동 참여시간은 평균 14시간 51분이다.

유형 3의 사교육 수, 사교육시간, 사교육비는 다섯 유형 중 가장 많은 특징이 있는 반면 체험활동 수와 시간은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호로 나타내면 “+ + + - -”로 표시할 수 있어 “사교육중심투자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분석대상자 1,652명 가운데 25.2%가 이 유형에 속한다. 유형 3의 사교육시간은 주당 평균 14시간 38분이고, 사교육비는 평균 40만원이며, 체험활동시간은 4시간 6분으로 사교육시간에 비해 체험활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적다.

유형 4는 사교육 수, 사교육시간, 사교육비, 체험활동 수, 체험활동시간 모두 평균보다 많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을 “적극적투자형”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9.3%이다.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투자는 사교육시간이 11시간 55분, 사교육비는 35만원이고, 체험활동시간 투자는 27시간 27분으로 자녀에 대한 사교육과 체험활동 투자가 평균보다 많다.

마지막으로 유형 5는 사교육 수, 사교육시간, 사교육비, 체험활동 수, 체험활동시간 모두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대상자 중 40.3%가 속하는 이 유형을 “소극적투자형”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 중 비율이 가장 높다. 사교육과 체험활동 시간은 각각 2시간 8분, 1시간 52분이고, 사교육비는 평균 17만원으로 다른 유형보다 특히 적다.

이상과 같이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을 비교해 보면, 체험중심투자형과 소극적체험투자형, 그리고 적극적투자형의 경우 체험활동 수와 시간이 평균보다 높은 공통점이 있으나 그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체험중심투자형은 적극적투자형보다 체험활동 수는 유사하나 연간 체험활동시간이 20시간 18분이 길며 소극적체험투자형보다 체험활동 수는 1개 정도 차이가 나고, 체험활동시간은 연간 32시간 54분의 큰 차이를 보이며 길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중심투자형과 적극적투자형도 사교육 수와 시간, 비용이 평균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으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다. 사교육중심투자형은 적극적투자형과 사교육 수는 유사하고, 사교육시간은 적극적투자형보다 주당 평균 2시간 43분 길며 월 평균 사교육비는 5만원 정도 많게 나타났다. 자녀투자패턴 중 사교육과 체험활동 투자가 평균보다 적은 소극적투자형의 비율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자녀의 성별, 자녀의 학교지역, 주택유형, 가구연간소득을 교차분석과 ANOVA분석 및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4>와 같이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자녀의 학교지역, 주택유형, 가구연간소득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부모의 연령, 자녀의 성별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험중심투자형은 부의 학력의 경우 초대졸이상인 3/5(63.3%)이상의 분포를 보이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모의 학력도 초대졸이상의 비율이 47.5%로 높다. 부의 직업은 관리전문가(26.6%)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비해 사무직(7.8%)과 무직(6.3%)의 분포는 적으며, 모의 직업은 관리전문가(22.2%)의 비율이 특히 높고, 서

비스판매직(15.9%)의 비율이 낮다. 자녀의 학교지역은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이 30.0%정도를 차지하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이 3/5(62.5%)이상을 보이고, 가구연간소득은 5,031만원이다.

소극적체험투자형은 부의 학력이 초대졸이상 집단의 비율이 57.2%로 고졸이하 집단(42.8%)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고, 모의 학력은 고졸이하 집단의 비율이 56.2%로 초대졸이상 집단(43.8%)보다 높은 분포를 보인다. 부의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가의 분포가 1/4(24.3%)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사무직(15.5%)과 무직(10.5%)의 비율이 각각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모의 직업의 경우에는 서비스판매직 종사자(23.1%)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다. 자녀의 학교지역은 그 외 지역이 3/4(75.1%)을 차지하고,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데 비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은 낮으며, 가구연간소득은 4,390만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적은 특징이

Table 4.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Investment Patterns on Children

Variables		experience oriented investment (n=64) ^{a)}	passive experience investment (n=354) ^{a)}	private education oriented investment (n=416) ^{a)}	aggressive investment (n=153) ^{a)}	passive investment (n=665) ^{a)}
Fathers' Age (yr) (F = 1.005)		45.45(3.51)	46.34(3.92)	46.24(4.10)	46.36(3.69)	46.49(4.07)
Mothers' Age (yr) (F = .406)		43.36(3.84)	43.48(3.72)	43.14(3.81)	43.39(3.43)	43.35(3.83)
Father's Education (χ ² = 12.449*)	under highschool graduate	22(36.7)	140(42.8)	180(45.5)	56(37.6)	305(50.4)
	over college graduate	38(63.3)	187(57.2)	216(54.5)	93(62.4)	300(49.6)
Mother's Education (χ ² = 25.062***)	under highschool graduate	32(52.5)	187(56.2)	223(55.8)	65(44.8)	396(65.1)
	over college graduate	29(47.5)	146(43.8)	177(44.2)	80(55.2)	212(34.9)
Father's Job Type (χ ² = 30.323***)	managerial · professional	17(26.6)	86(24.3)	93(22.4)	38(24.8)	132(19.8)
	clerical	5(7.8)	55(15.5)	70(16.8)	19(12.4)	75(11.3)
	service · sales	18(28.1)	70(19.8)	88(21.2)	31(20.3)	136(20.5)
	simple skilled ect.	20(31.3)	106(29.9)	137(32.9)	57(37.3)	239(35.9)
	non job	4(6.3)	37(10.5)	28(6.7)	8(5.2)	83(12.5)
Mother's Job Type (χ ² = 24.525**)	managerial · professional	14(22.2)	57(16.2)	61(14.7)	26(17.0)	86(13.0)
	clerical	8(12.7)	40(11.4)	62(14.9)	11(7.2)	69(10.4)
	service · sales	10(15.9)	81(23.1)	98(23.6)	34(22.2)	167(25.2)
	simple skilled ect.	9(14.3)	48(13.7)	45(10.8)	13(8.5)	101(15.3)
	non job · housewife	22(34.9)	125(35.6)	149(35.9)	69(45.1)	239(36.1)
Sex of Children (χ ² = 9.068)	boy	33(51.6)	182(51.4)	243(58.4)	78(51.0)	327(49.2)
	girl	31(48.4)	172(48.6)	173(41.6)	75(49.0)	338(50.8)
School Area of Children (χ ² = 49.101***)	seoul	5(7.8)	24(6.8)	25(6.0)	12(7.8)	52(7.8)
	incheon · gyeonggi	14(21.9)	64(18.1)	55(13.2)	18(11.8)	186(28.0)
	other regions	45(70.3)	266(75.1)	336(80.8)	123(80.4)	427(64.2)
Type of Housing (χ ² = 18.417*)	detached house	13(20.3)	91(25.7)	87(20.9)	33(21.6)	188(28.3)
	apartment	40(62.5)	198(55.9)	279(67.1)	96(62.7)	375(56.4)
	multiplex housing etc.	11(17.2)	65(18.4)	50(12.0)	24(15.7)	102(15.3)
Income (F = 8.749***)		5,031a (2,520)	4,390b (2,360)	5,070a (2,658)	5,111a (2,284)	4,306b (2,482)

*p < .05, **p < .01, ***p < .001

^{a)}Total number of no responses due to differences in specific variables.

있다.

사교육중심투자형은 부의 학력이 초대졸이상 집단이 54.5%, 고졸이하 집단이 45.5% 각각 분포되어 있고, 모의 학력은 고졸이하 집단이 55.8%, 초대졸이상 집단이 44.2% 분포되어 있다. 부의 직업을 보면 사무직의 비율이 16.8%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모의 직업은 사무직(14.9%)과 서비스판매직(23.6%) 종사자가 많다. 자녀의 학교지역은 그 외 지역이 80.8%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아파트 거주자 집단 비율은 67.1%로 높으며, 가구연간소득은 5,070만원이다.

적극적투자형은 부의 학력을 보면 초대졸이상 3/5(62.4%)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모의 학력도 초대졸이상 55.2%이상의 분포를 보이며 특히 높다. 부의 직업은 관리전문가 종사자가 1/4(24.8%)의 분포를 보이고, 무직의 비율은 5.2%로 특히 낮으며, 모의 직업은 무직·전업주부 비율(45.1%)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가장 높고, 사무직(7.2%)과 농림·기능·장치·단순노무 종사자 비율(8.5%)이 가장 낮다. 자녀의 학교지역은 그 외 지역이 80.4%로 높은 특징이 있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이 62.7%, 단독주택이 21.6% 순으로 나타나며, 가구연간소득은 5,111만원으로 가장 많다.

소극적투자형은 부의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 집단이 절반(50.4%)을 차지하고, 모의 학력도 고졸이하 집단이 3/5(65.1%)이상의 분포를 차지하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인다. 부의 직업을 보면 관리전문가 종사자가 19.8%로 낮은 분포를 보이는데 비해 무직은 12.5%로 특히 높으며, 모의 직업은 서비스판매직(25.2%)과 농림·기능·장치·단순노무 종사자(15.3%)의 분포가 높는데 비해 관리전문가 종사자(13.0%)의 분포는 낮다. 자녀의 학교지역은 그 외 지역이 64.2%로 낮고,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이 28.3%로 높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이 56.4%로 낮으며, 가구연간소득은 4,306만원으로 가장 적다.

3.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별 자녀의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별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업성취도는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 중 적극적투자형(5.04점)과 체험중심투자형(4.99점)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적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높은 유형은 사교육중심투자형(4.41점)과 소극적체험투자형(4.10점), 소극적투자형(3.62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의 경우 체험중심투자형(3.08점)과 적극적투자형(3.07점)은 사교육중심투자형(2.96점), 소극적투자형(2.92점)과 집단 간 차이를 보이며 높은 수준을 보였고, 하위영역에서도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비해 공동체 의식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회관계의 하위영역을 보면, 또래관계가 가장 높은 유형은 적극적투자형과 체험중심투자형으로 이들 유형은 소극적투자형과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교사관계는 체험중심투자형과 적극적투자형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이들 유형은 나머지 세 유형과 차이를 보였다. 즉 체험중심투자형과 적극적투자형은 학업성취가 높고, 또래 및 교사와의 유대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자녀의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자녀의 성별, 자녀의 학교지역, 주택유형,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을 독립변수로 하고, 학업성취와 사회관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다.

Durbin-Watson는 1.906~1.925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

Table 5. Differences in Academic Performance and Social Relations by Investment Patterns on Children

Classification	experience oriented investment	passive experience investment	private education oriented investment	aggressive investment	passive investment	F
academic performance	4.99(1.91)a ⁺	4.10(1.86)b ⁺	4.41(1.86)b ⁺	5.04(1.86)a ⁺	3.62(1.87)c ⁺	23.007***
social relations	3.08(.33)a	2.99(.35)bc	2.96(.34)c	3.07(.34)ab	2.92(.37)c	7.559***
peer relations	3.11(.37)a	3.08(.37)ab	3.04(.36)ab	3.12(.36)a	3.00(.38)b	5.131***
teacher relations	3.15(.59)a	2.89(.63)b	2.89(.62)b	3.04(.64)a	2.82(.63)b	6.679***
community spirit	2.90(.52)	2.82(.58)	2.80(.54)	2.93(.57)	2.79(.65)	2.149

***, p < .001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 2에 근접해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값이 .31~.89,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1~2.93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모델 1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소득($\beta=.169$), 모의 연령($\beta=.102$), 부의 학력($\beta=.093$)과 자녀의 학교지역($\beta=-.093$), 모의 학력($\beta=.072$), 주택유형($\beta=-.06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의 학교가 서울인 경우, 부모의 학력이 초대졸이상인 집단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의 학업성취가 더 높았다. 모델 1의 설명력은 13.3%를 보였다.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을 추가한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었던 모의 학력은 사라지고, 적극적

투자형($\beta=.217$), 사교육중심투자형($\beta=.161$), 소득($\beta=.144$), 자녀의 학교지역($\beta=-.122$), 체험중심투자형($\beta=.114$), 소극적체험투자형($\beta=.103$), 모의 연령($\beta=.102$), 부의 학력($\beta=.094$), 주택유형($\beta=-.069$), 자녀의 성별($\beta=.053$)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소극적투자형에 비해 적극적투자형, 사교육중심투자형, 체험중심투자형, 소극적체험투자형의 순으로 자녀의 학업성취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가 서울 지역이고,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부의 학력이 높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과 여학생의 학업성취가 높았다. 자녀투자패턴의 투입으로 모델 2의 설명력은 모델 1보다 5.2% 증가한 18.5%를 보였다.

다음은 자녀의 사회관계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모델 1을 분석한 결과 소득($\beta=.127$), 자녀의 성별($\beta=.075$)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져 소득수준이

Table 6. Influence of Variables on Academic Performance and Social Relations of Children

Variables		Academic performance				Social relations			
		Model I		Model II		Model I		Model II	
		b	β	b	β	b	β	b	β
Father's Age		-.024	-.045	-.022	-.041	-.001	-.016	-.001	-.011
Mother's Age		.057	.102**	.057	.102**	.002	.017	.001	.014
Father's Education (under highschool)	over college graduate	.389	.093**	.392	.094**	-.012	-.017	-.017	-.024
Mother's Education (under highschool)	over college graduate	.301	.072*	.210	.050	.045	.063	.040	.055
Father's Job type (clerical)	managerial · professional	.041	.008	.044	.009	-.003	-.003	-.004	-.005
	service · sales	.067	.013	.041	.008	-.020	-.024	-.024	-.028
	simple skilled etc.	-.158	-.037	-.185	-.043	-.034	-.046	-.036	-.049
	non job	.005	.000	-.080	-.006	.103	.046	.100	.044
Mother's Job type (clerical)	managerial · professional	.185	.032	.150	.026	-.001	-.001	-.006	-.006
	service · sales	-.268	-.055	-.291	-.060	.010	.013	.009	.011
	simple skilled etc.	-.017	-.003	-.015	-.002	-.021	-.020	-.024	-.023
	non job · housewife	.199	.046	.104	.024	.037	.049	.029	.039
Sex of children (boy)	girl	.197	.048	.219	.053 [†]	.053	.075**	.053	.075**
School area of children (seoul)	incheon, gyeonggi	-.365	-.071	-.319	-.062	-.012	-.013	-.008	-.009
	other regions	-.430	-.093 [†]	-.562	-.122**	-.039	-.049	-.047	-.060
	detached house	-.279	-.057 [†]	-.236	-.048	-.008	-.009	-.007	-.008
Type of house (apartment)	multiplex housing, shopping quarters etc.	-.356	-.061*	-.404	-.069**	-.010	-.010	-.019	-.019
Log income		.731	.169***	.622	.144***	.094	.127***	.091	.123***
Investment Patterns on Children (passive investment)	experience oriented investment			1.216	.114***			.147	.081**
	passive experience investment			.519	.103***			.070	.082**
	private education oriented investment			.754	.161***			.026	.032
	aggressive investment			1.518	.217***			.112	.094**
constant		-3.384**		-2.899*		2.183***		2.181***	
F		12.171***		14.679***		3.298***		3.694***	
R ²		.133		.185		.040		.054	
adj. R ²		.122		.172		.028		.040	

* $p < .05$, ** $p < .01$, *** $p < .001$

높을수록,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사회관계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모델 1의 설명력은 4.0%를 보였다.

모델 2에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을 투입한 결과 소득($\beta=.123$), 적극적투자형($\beta=.094$), 소극적체험투자형($\beta=.082$), 체험중심투자형($\beta=.081$), 자녀의 성별($\beta=.07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모델 2의 설명력은 5.4%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소극적투자형에 비해 적극적투자형, 소극적체험투자형, 체험중심투자형의 사회관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교육과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을 분류한 후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패턴별 자녀의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의 차이와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사교육 수, 사교육시간, 사교육비, 체험활동 수, 체험활동시간을 토대로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을 유형화하면 체험중심투자형, 소극적체험투자형, 사교육중심투자형, 적극적투자형, 소극적투자형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된다. 체험중심투자형은 사교육비가 평균보다 많고, 체험활동시간은 다섯 유형 중 특히 길며 평균보다 5배 많은 특징이 있다. 소극적체험투자형은 체험활동 수와 시간이 각각 평균값보다 많으나 체험활동시간의 경우 평균값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패턴들 중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사교육중심투자형은 사교육 수, 사교육시간, 사교육비가 다른 유형들보다 많은 특징이 있다. 적극적투자형은 사교육과 체험활동 모두 평균보다 많은 반면 소극적투자형은 사교육과 체험활동 모두 평균보다 특히 적다.

둘째,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체험중심투자형과 적극적투자형은 부모의 학력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고, 부모의 직업이 관리전문가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체험중심투자형, 사교육중심투자형, 적극적투자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의 분포가 높고, 가구소득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소극적투자형은 부모의 학력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낮고, 부모의 직업은 관리전문가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자녀의 학교지역은 경기·인천지역 집단 및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이 높은 비중을 보인다.

셋째,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 중 적극적투자형과 체험중심투자형의 학업성취와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가 유의

미하게 높고, 소극적투자형의 학업성취와 또래관계는 가장 낮고, 소극적체험투자형, 사교육중심투자형, 소극적투자형의 교사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극적투자형에 비해 적극적투자형, 사교육중심투자형, 체험중심투자형, 소극적체험투자형이고, 소득, 자녀의 학교지역, 자녀의 성별, 모의 연령, 부의 학력, 주택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다. 자녀의 사회관계에는 적극적투자형, 소극적체험투자형, 체험중심투자형의 자녀투자 변인과 자녀의 성별, 소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이 영향을 미친다. 적극적투자형, 체험중심투자형, 소극적체험투자형은 자녀의 학업성취와 사회관계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성별과 소득도 자녀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녀에 대한 투자는 사교육의 경우 주당 평균 413분인데 비하여 체험활동의 경우에는 연간 평균 708분으로 나타나 사교육 투자에 비해 체험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다. 최근 체험활동의 인증제도 및 체험활동의 교과과정 내외의 도입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가 체험활동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 청소년 자녀에게 사교육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전인적 성장을 위해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한 역량 발달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도입한 교과과정 내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과정 외의 학교 밖 체험활동(S. Lee, 2010; C. Bae & H. Nam, 2013)에 대한 참여인식 부족이다. 2009년 학교교육 내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이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및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진행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관심영역 및 활동 프로그램의 욕구를 조사하여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교과과정 외의 학교 밖 청소년 활동에도 쉽게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안내 책자나 홍보 브로셔를 배치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시경쟁과 학벌위주의 사회환경적 측면과 관련시켜 볼 때 학교나 가정, 사회적으로 청소년이 학업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청소년 활동에 대한 참여 필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에 대한 양질의 시설확대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체험활동 영역별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관리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교육중심투자형의 경우 사교육시간 투자는 주당 평균 878분, 월 평균 사교육비는 40만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체험활동은 연간 평균 246분으로 체험활동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사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특히 사교육중심투자형의 경우 사교육과 체험활동 투자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체험중심투자형과 적극적투자형보다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 수준이 낮게 나타난 점을 볼 때 자녀에게 사교육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성적 및 사회관계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유형은 사교육시간 투자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다른 활동에 사용할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루 24시간의 한정된 시간은 한 가지 활동에 시간을 사용하면 다른 활동에 사용할 시간을 감소하는 제로섬(zero-sum)특성으로 장시간 사교육 투자는 자녀가 다른 활동에 사용할 시간확보에 어려움을 발생시켜(O. Kim & E. Park, 2012)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한 역할 습득과 사회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에게 사교육에 지나치게 투자하기보다 적정수준의 투자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험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부모 및 청소년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 중 소극적투자형의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 수준이 낮은 점이다. 소극적투자형의 경우 사교육시간은 주당 평균 128분, 연간 체험활동참여시간은 112분으로 다른 패턴보다 사교육(6.8~1.9배)과 체험활동(25.6~2.2배) 참여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소극적투자형에 속하는 집단의 비중이 2/5(40.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사교육과 체험활동참여가 적으며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가 낮은 점과 관련하여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소극적투자형의 경우 소극적체험투자형과 비교해 보면 사교육 및 체험활동 참여시간이 약 2배, 8배 각각 적은 수준이고, 이들 두 유형은 소득수준은 유사하면서 체험중심투자형, 적극적투자형, 사교육중심투자형 보다 낮으며, 소극적투자형에 속하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즉 부모의 소득 및 학력과 연관해 보면, 소득이나 학력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자녀의 능력을 개발시키기도 하지만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은 부모의 직업과 인맥, 정보망 등을 통한 연고지 등용(nepotism or family connection)을 이용해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고 있어 자녀교육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 Kim & Y. Moon, 2006). 가구주의 학력수준에 따른 교육비지출 구조를 분석한 연구(K. Kim, 2007)에서 소득이 동일할 때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주로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통해 교육비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사교육비 지출액과 사교육비 지출비율, 그리고 개인 교습비 지출에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밝혀졌다.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사교육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M. Park & J. Yeo, 2000; I. Chung, 2011; J. Seok et al., 2012)도 확인되고 있어 부모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소극적투자형에 속하는 청소년의 경우 사교육과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다른 유형보다 적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외에 방과 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하면, 방과 후 시간사용 및 시간관리와 관련해서 볼 수 있다. 방과 후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Pääkkönen, 2008)에서 부모의 감독 없이 혼자 집에 있을 경우 TV시청, 컴퓨터 게임, 인터넷 등의 미디어 이용으로 우울, 학업성취 하락 등 다방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과 후 누구와 어디서, 어떤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방과 후 시간사용을 스스로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며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과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을 분류한 후 패턴별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의 차이,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에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여 자녀에 대한 투자 패턴별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자녀에 대한 투자의 특성을 파악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첫째,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점은 중학생 자녀 또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계로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후의 연구에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계를 포함시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체험활동의 경우 사교육과 달리 비용측면이 조사되지 않아 체험활동 수와 체험활동시간 변수로 대체하여 자녀의 체험활동에 대한 투자를 분석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체험활동의 비용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실시되어 체험활동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소득이 자녀의 성적 및 사회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점을 고려할 때, 소득계층별 자녀에 대한 투자 실태(사교육과 체험활동)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녀에 대한 투자가 자녀의 학업성취 및 사회관계에서 소득의 조절효과를 파

약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득계층사이의 자녀에 대한 투자 격차를 명확히 분석함으로써 자녀교육투자에 대한 심각성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의 심리·정서적 변인 등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hn, B.-I. (2009). *The effects of the participatory experiences in youth organizations on social capital build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n.
- Albanesi, C., Cicognani, E., & Zani, B. (2007). Sense of community, civic engagement and social well-being in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387-406.
- An, S. Y., & Lee, H.-S. (2009). The effects of individual psychology and family variables o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3), 163-176.
- Bae, C.-U., & Nam, H.-S. (2013). *Studies on the effects of youth activities: focusing on multicultural acceptance, community sense, community awareness*. Paper session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108-130.
- Ban, S. J., Jeong, S. S., Yang, S. K., & Oh, H. Y. (2005). *Analysis of the impact of extracurricular academic achievement*. Paper presented at the 1st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Conference, Seoul, Korea, 493-530.
- Cho, A.-M., & Shin, T.-S. (2012). The participation types and levels of youth activity and the analysis of characters based on growth mixture modeling. *Studies on Korean Youth, 23*(2), 161-184.
- Cho, M. Y. (2010). *A study on the path analysi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learning model of youth act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n.
- Cho, N. A. (2009). *The analysis of structure model about the influence on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affected by youth group act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eoul, Korean.
- Choi, Y., & Choi, K. (2012). Science experience's type and meaning of Korean middle school-science gifted students in parent·school·out-of school institu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32*(10), 1580-1598.
- Chung, I. J. (2011). Social class predictors of private tutoring expenses and their effects on academic performance of children in Korean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5*, 73-98.
- Framework act on juveniles.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316&efYd=20150101>
- Gutman, L. M., & Midgley, C. (2000).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supporting the academic achievement of poor African American students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23-248.
- Ha, S. M. (2013). *The effect of youth's civic engagement of their citizenship: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n.
- Hwang, J.-H. (2013). *A study about effect of time participating in private lesson on depression which is related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Ang University, Seoul, Korea.
- Hwang, J. K., Heo, H. J., & An, H. M. (2013). *Changes in youths' participation in youth activities, their self-re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from middle school year 1 to year 3*.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Publication No. 13-R14-3).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Hwang, Y.-M. (2010). *A study on life adjustment of school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the youth activity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Jin, E. S., & Lim, Y. S. (200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s of youth activitie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6*(4), 211-234.
- Ju, I.-S. (2000).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supplementary educational investment on childre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4*(1), 1-13.
- 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Retrieved from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44&efYd=20140722#0000>
- Kang, L., Palisano, R. J., Orlin, M. N., Chiarello, L. A., King, G. A., & Polansky, M. (2010). Determinants of social participation-with friends and others who are not family members-for youths with cerebral palsy. *Physical Therapy, 90*(12), 1743-1757.
- Kang, Y. J. (2010).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and school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income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21*(3), 323-339.
- Kim, A.-Y. (2011). *The relationships of children's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ego-resiliency and parents' peer attachment to children's daily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E. (2007). A study on the social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extra tutoring fe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ducationa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1*(5), 134-162.
- Kim, H. C., & Choi, C. W. (2011). *Research of creative activities and youth activities policy linkages: 2010 Creative activity surve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Publication No. 2010 KSYC-Creative Activities).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im, H.-K., & Moon, Y.-H. (2006). Parent and wife's educational level and the rate of return of educ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21*(1), 1-22.
- Kim, H. S. (2012). *Estimation of education production function focusing on school effects and policy directions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Korean Development Institute Publication No. 2012-09). Seoul: Korean Development Institute.
- Kim, I.-S. (2009). *The effects on leadership and sociality of participation level in youth camp*.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Kim, J. M., & Kim, T. K. (2012).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community sense, community awareness on youth activities*. Paper session presented at the 2nd conference of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372-385.
- Kim, K., Ahn, S. Y., Chang, S.-S., Kim, M. R., & Choi, D. S. (2009).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the life patterns of child · youth*.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Publication No. 11-1351000-000305-01).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im, K.-J. (2007).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and education expenditure for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6), 111-120
- Kim, O.-S., & Han, K.-M. (2010). *Leisure management*. Seou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 Kim, O.-S., Han, Y.-S., Lee, K.-Y., Lee, Y.-S., Cho, H.-K., Lee, S.-M., & Youn, Y.-O. (2012). A typology of family shared time of Korean adult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2), 165-186.
- Kim, O.-S., & Park, E. J. (2012). A comparative study of time us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4), 119-132.
- Kim, S. A. (2011). A study on the coordination of structural patterns of child and youth welfare from the perspective of life-spa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3), 117-140.
- Kim, S. G., Choi, H. J., & Park, S. A. (2012). The effect of youth activity by aspects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life on youths: focusing on mediated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4*(4), 189-207.
- Kim, S. H. (2007). *The effect of training activity experience on youth life effectiv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 J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W. (1999). A study on relation of expenses, burden, and economic welfare of private education in household.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0*(3), 101-121.
- Kim, S.-Y. (2005).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private education experience and their attitude towards their school teachers and less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N., & Park, O. S. (2009).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youth activities: focusing of self-esteem, vocational maturity, academic achievement, life satisfaction, stress,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1*(1), 79-99.
- Ko, K. W., & Nam, C. Y. (2011). The effects of experiential activity in early adolescence on the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4), 231-250.
- Kwon, I. N., Jung, C. S., Kim, J. H., & Kim, Y. C. (2008).

- Youth activity*. Seoul: Hakjisa.
- Lee, E. W. (2004). Economic analysis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in Korea. *Economic Studies*, 22(2), 1-31.
- Lee, E. W. (2006). The impact of household income and private education on academic performa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6), 247-273.
- Lee, J. (2002). Family environment, private tutoring and school grad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6(6), 195-213.
- Lee, J. R. (2010). The influence of family resources on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focusing on the difference in mediating effects size between parenting and private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1), 137-146.
- Lee, K.-S., Baek, H.-J., Lee, J. W., Kim, J. Y., Seo, U. S., & Han, Y. G. (2011). *The basic analysis report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Publication No. 11-R10-1).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Lee, R. Z. (2011).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educational performanc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private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2002). Inequality of the household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by income class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9), 143-159.
- Lee, S. (2010, November). *Issues and challenges of creative activities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admission officers*. Paper session presented at 2010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Osan University, 417-426.
- Lee, S.-L. (2005).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3), 63-76.
- Lee, S. S. (2003). The effects of household financial system on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cused on income classifi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11), 151-169.
- Lim, J. (2010). *2009 Korea children, youth activities, cultural research*.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Lim, K.-U. (2007). Study of the importance and the satisfaction of the youth program using IPA. *Korea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21(4), 179-194.
- OECD. (2013). *Education at Glance 2013*.
- Park, A.-C. (2003). Validation of Korean adolescent ego-identity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7(3), 373-392.
- Park, C. N., & Do, J. S. (2005). The effects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on academic achievement. *Social Welfare Policy*, 22, 281-303.
- Park, E. J., & Ko, J. W. (2014).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patterns and study habits on academic achievem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5), 443-456.
- Park, M.-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and subjective happiness according to the type of youth people's leisure activ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n.
- Park, M. H., & Yeo, J. S. (2000). Analysis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of Korean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12), 189-206.
- Park, S. Y. (2011). A study on youth worker's competency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2), 97-122.
- Pääkkönen, H. (2008). Alone at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5(1), 43-64.
- Putnam, R. D. (2009). *Bowling alone*. Seoul: Paperroad.
- Seok, J. E., Kim, B. K., & Noh, H. J. (2012). Effect of married women's economic activity type on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for children in Korea.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8(3), 87-120.
- Shin, M., Jeon, S. H., & Yoo, M. S. (2012).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hips, self esteem,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1), 81-92.
- Shin, T. S., Lee, H. J., & Kwon, H. K. (2012). *Effects of delinquency action and emotional problems of low-income youth participation in after school activities*. Paper session presented at the 2nd conference of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357-368.
- Song, J. J. (2009). *SPSS/AMOS Statistical analysis method*. Gyeonggi: BOOK 21.
- Statistics Korea. (2014). The result of investigation on private education expenses in 2013. Retrieved from www.kostat.go.kr
- Sung, K., & Kim, J. (2010). An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tutoring experiences

and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science achievement: Korea, Finland and Japa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Sociology of Education*, 20(1), 103-126.

Yang, J.-S., & Kim, S.-M. (2003). Analysis of investment in human capital of Korean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5), 221-232.

Youniss, J., Mclellan, J., Su, Yl., & Yates, M. (1999). The role of community service in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4(2), 248-261.

접수일 : 2014년 11월 11일

심사일 : 2015년 01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1월 27일